

'저출산 심화' 산부인과 기피 '우울증 급증' 정신과는 인기

■ 전남대·조선대병원 최근 4년 전공의 지원 분석

광주지역 대학병원에 전공의(레지던트) '출립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2005~2008년 4년간 전남대·조선대 전공의 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과·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비인기과는 지원자가 없는 등 해마다 전문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주 5일 근무에 따른 레지던트 증가와 알코올·인터넷 등 각종 중독 및 우울증 환자 증가로 인해 정형외과·정신과 등 일부 학과가 인기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형외과·정신과 인기=올해 85명의 전공의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출산을 저조로 인해 산부인과(4명 모집/2명 지원)의 지원은 여전히 낮았다. 소아과도 6명 모집에 1명만이 지원, 올해 첫 미달 사태를 빚었다.

산업외과·핵의학과·방사선과·병리과 등은 병원 개원이 어려운데다 진료가 불투명해 지원자가 없거나 1명에 그쳤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총 23개 과 중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6개 과가 정원이 미달됐으며, 진단검사의학과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 전남대병원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정원	지원	정원	지원	정원	지원	정원	지원
내과	15	25	15	37	16	31	16	25
외과	9	9	9	6	9	6	7	2
흉부외과	2	2	2	2	2	1	2	1
신경외과	3	3	3	5	3	8	3	4
정형외과	5	7	5	6	5	13	5	11
성형외과	2	4	2	3	2	4	2	3
산부인과	3	3	3	1	3	3	4	2
소아청소년과	6	6	6	6	6	6	6	1
피부과	2	7	2	5	3	4	3	5
안과	3	5	3	5	3	5	3	5
이비인후과	2	5	2	4	2	5	2	3
정신과	3	3	3	3	3	3	3	8
신경과	2	3	2	6	3	5	3	4
재활의학과	2	6	2	6	2	5	2	5
영상의학과	3	3	4	5	5	7	5	8
마취통증의학과	4	4	4	6	4	4	4	4
진단검사의학과	3	2	2	2	2	2	2	0
병리과	3	0	3	2	3	3	3	2
응급의학과	4	4	5	4	4	4	4	3
...
소계	82	107	84	121	86	125	85	103

■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정원	지원	정원	지원	정원	지원	정원	지원
내과	7	13	7	10	8	13	8	13
소아과	2	2	2	1	2	2	2	2
신경과	1	1	1	2	1	1	1	3
정신과	1	1	2	5	2	5	2	4
피부과	1	3	1	4	1	4	1	5
외과	3	3	3	4	4	1	4	1
흉부외과	1	2	1	0	1	1	1	0
정형외과	2	5	2	6	3	5	3	7
신경외과	1	1	2	3	1	1	2	3
성형외과	1	1	1	4	1	4	1	1
산부인과	2	3	2	0	2	1	2	0
안과	1	1	1	3	1	3	1	1
이비인후과	1	1	1	1	1	1	1	1
재활의학과	1	4	1	2	1	2	1	3
마취통증의학과	3	3	3	3	3	3	3	3
영상의학과	1	1	2	2	2	3	1	2
진단검사의학과	1	0	1	1	1	0	1	1
병리과	1	1	1	0	1	1	1	0
응급의학과	2	2	2	1	3	3	3	2
...
소계	35	52	39	55	43	58	43	56

레포트 열풍·사고 급증...정형외과 경쟁 치열

를 모집한 전남대병원에는 103명이 지원했다.
정형외과의 경우 5명 모집에 11명이 지원해 2.2: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과로 급부상했다. 최근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다 교통사고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알코올·약물·인터넷 중독 및 우울증 환자들이 늘면서 지난해까지 1:1의 경쟁률을 보였던 정신과의 경우 올해 3.6:1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선대병원(43명 모집에 56명 지원) 피부과는 1명 모집에 5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정형외과도 지난 2005년부터 지원자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는 2.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비인기과 미달 심화=의료계의 3D 업종으로 불리는 외과는 전남대병원(7명 모집/2명 지원)과 조선대병원(4명/1명)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피분야'로 전락했다. 외과나 흉부외과의 경우 장시간 힘든 수술을 해야하고, 개원을 한다 해도 장비를 갖추는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대학

원자가 없었다.
조선대병원은 24개 과 중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병리과·응급의학과 등 5개 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산부인과·흉부외과·병리과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책은 없나?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산부인과 전공의에 월 50만원의 수당을 새로 지급하는 등 10개 전문과목 전공의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추세와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할 때 비인기학과 기피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남대 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사명감을 강조하기 전에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등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진료과목에 대한 가치를 상향조정해 의료수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주택가로 간 '바다이야기'

'단골' 상대 비밀 영업...조폭도 다시 '고개'

2006년 7월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정국으로 경찰의 단속이 소홀해지는 것을 틈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유흥가에서 화려한 조명과 광고로 시민들을 유혹했던 게임장들이 최근에는 주택가에 간판도 없는 비밀 영업장을 차려놓고 첩문 안에서 신원이 확인된 '단골'들만 출입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바다이야기'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조직폭력배들도 다시 게임장 운영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광주 서부경찰은 2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서구 쌍촌동 H게임장 업주 김모(43)씨와 쌍촌동 B게임장 업주 안모(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해 손님을 입장시키는 등 은밀한 영업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내에서 불법 게임장이 가장 성행하고 있는 서구에서 올해 단속된 불법 게임장 영업 행위는 214건으로, 11월 들어서만 10여 건에 달한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의 상당수가 지난해 이미 단속됐던 사람들로, 잠시 닫았던 게임장의 문을 다시 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조선대 학생들이 지난 1일 동구 지원동·지산동·산수동에 사는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조선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이날 행사에는 9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 18세대에 각 300장씩의 연탄을 전달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성 오리농가서도 시 양성반응

감염 여부 주말에 판정

전남 지역 일부 오리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혈검사에서 장성지역 오리농가 한 곳에서 항체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에서도 AI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농가는 특히 경남 진주의 농가에도 새끼오리를 분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최근 AI가 발생한 광주지역 오리 농가에 새끼오리를 분양했던 전남지역 5개(종) 오리농가에 대한 채혈검사 결과, 장성지역 윤모씨의 농가에서 '혈청형 H7'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혈청형 H7' 바이러스는 이번 AI가 발생한 광주지역 오리농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로, 항체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장성 농가의 오리가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채혈검사를 담당한 국립수의과학 연구원은 장성지역 오리농가의 AI감염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주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성과 함께 채혈검사가 이뤄진 함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에서도 AI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농가는 특히 경남 진주의 농가에도 새끼오리를 분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모닥불을 피운 흔적과 라이터·신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남자의 신원과 타살 여부 등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불 탄 남자 연사체 발견

2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O주유소 인근 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불에 타 숨져있는 것을 Y공업사 직원 손모(42)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모닥불을 피운 흔적과 라이터·신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남자의 신원과 타살 여부 등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다들 물어봐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정호, 현수
KCC함도, 시스텔함도 생산·시공
KCC콘크리트 KCC타일
(주)본드나리 KCC타일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브
▶ 010-929214-3002 ▶ 010-929214-3001

'쌀 외상 구입' 농심 울린 사기범
○"환경경찰은 2일 농가에서 쌀을 훔쳐가려 외상을 시도한 뒤 달아난 오모(36·광주시 광산구)씨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1시에 함평군 나산면 정모(여·64)씨 집에 몰래 들어가 쌀 두 가마를 훔쳤으며, 앞서 2일에는 "쌀 소매상인데 외상을 주면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속여 41만원 상당의 쌀과 참쌀을 가로챘다는 것.
○오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줘 안심시키고 농민들이 자신을 고소하면 돈을 보내 합의를 보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오씨가 훔친 쌀을 광주 지역 식당과 재래시장에 되판 점 등으로 미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 /림평=박영진기자 py4079@

신비와 감동! 이별사
코오동세계일주
광주점
문의 전화 **062-373-3322**

무인출발상품

후쿠오카정기비

후쿠오카 2박3일 599,000~
후쿠오카 3박4일 689,000~

대만 기행 3일 499,000~
대만 기행, 화면 4일 549,000~

무자녀 새해 해맞이 여행

소천도 힐링 명소도 보고
299,000

사랑도 선상해돋이 59,000

무상공방송마

발리권 전세기(2007.12.29~2008.01.03)

마닐라(박람회) 4일(수) 799,000~
마닐라(보라카이) 4일(수) 949,000~
마닐라(보라카이) 5일(목) 1,049,000~
마닐라(골프 13박) 4일(수) 1,049,000~
마닐라(골프 15박) 5일(목) 1,149,000~

중국 무인출발상품

북경만리장성 4박5일 399,000~
홍콩 4박5일 429,000~
상해-광주-소주 399,000~
상해-상하이-소주 749,000~

관악 3박4일 869,000~
1 4박5일 919,000~
2 3박4일 1,399,000~
3 4박5일 1,399,000~

4박5일 759,000~
4박5일 949,000~
5박6일 1,050,000~
4박5일 1,090,000~

6박7일 740,000~
4박5일 820,000~
5박6일 990,000~
4박5일 1,090,000~